

가로세로 3cm에 담긴 역사와 숨은 사연들

‘우표 역사를 부치다’ 나이트 요스케 지음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우표를 통해 배운 게 더 많다.” 미국 32대 대통령으로, 유명한 필라델리스트(Philatelist·우표 수집가)였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남긴 명언이다. ‘우표 역사를 부치다’를 쓴 나이트 요스케(45) 씨도 책 머리에 “우표는 국가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만큼 정치권 견해, 정책,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면서 “우표를 통해 정치·경제나 생활상 등 그 나라 문화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고 단언한다. 그래서일까. 책을 넘기다보면 우표에 그려진 내용을 맞추면서 드러나는 한국, 북한의 모습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20세기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해온 미국과 그에 대한 반발적 표현, 이른바 ‘반미주의’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우표가 알려주는 남·북한=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뒤에도 한국에서는 한동안 일제가 만든 우표를 썼다는 사실이 시민들이 잘 몰랐던 사실이다. 저자는 1946년 3월 경남 통영의 조선식산은행 통영지점에서 서울 조선저축은행으로 보낸 우편물의 편지봉투에 붙은 우표, 1946년 7월 우편요금 수령증에 붙어있는 우표를 찾아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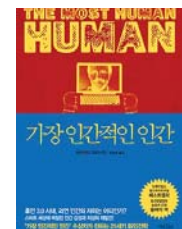
6·25 전쟁에 대한 접근도 흥미롭다. 나이트 씨는 수집한 우표를 통해 무려 남침을 위한 북한의 사전 준비가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지적한다. 북한이 1950년 6월 20일 발행한 ‘해방 5주년’ 기념우표는 공식 기념일(8월 15일)보다 2개월이나 앞당겨졌다. 남·북한에 있어 해방의 의미와 지금도 매년 기념식이 8월 15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발행 시기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8월15일에 기념우표를 발행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또는 어려운 거란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증거”라는 게 저자 주장이다. 저자는 “광복 기념 우표를 발행하고 불과 5일 뒤 한국 전쟁 발발로 이어진 것은 북한 스스로 한국전쟁이 자신들의 소행이었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풀이했다. 남한은 당시 한창이던 한국 전쟁으로 기념우표조차 발행하지 못했다. 북한이 1950년 7월 10일 서울 점령(6월28일)을 기념, 남자와 함께 서울 중앙청에 걸린 인공기를 담아 발행한 우표도 남침을 증명하는 자료로 꼽았다. 전쟁 발발 보름 만에 기념 우표를 발행한 점은 북한이 사전에 우표 발행을 준비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 수상과 작업 등 철저한 차단된 북한 사회의 흐름도 엿볼 수 있다. 책은 북한이 6·25를 ‘미군 철수 투쟁의 날’로 선포하며 발행하던 기념 우표와 ‘미제를 타도하자!’, ‘양키 이

놈’, ‘세계 도처에서 미제의 각을 때내자’ 등 섬뜩한 구호가 차지하던 반미 우표 시리즈가 70년대 초를 전후해 김일성 수상화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책장을 넘길수록 노골적 디자인의 반미 우표가 김일성 개인 숭배의 역사로 바뀌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전 세계의 정보, 각 나라 우표에= 지난 1964년 8월 미국 정부는 베트남 통킹만에서 미 군함이 북베트남의 어뢰정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발표하면서 즉각 공군을 출격시켜 북베트남 전함, 해군기지, 연료저장소를 파괴하는 등 베트남 전 확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7년 뒤인 1971년 이 사건은 국방부 기밀문서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조각으로 확인됐다. 책은 이후 북베트남에서 드러나는 ‘반미’ 주의를 다양한 우표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1973년 3월 마지막 부대를 철수시키며 베트남에서 물러난 뒤 발행된 ‘미군기 4181기 격추’라는 북베트남 기념우표를 들여 세계 최강의 군사력에 불구, 만신창이가 된 채 물러난 내용도 눈길을 끈다. 이외 클린턴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모니카 르윈스키를 표현한 우표, 1980년대 미국에서 개발해 걸프전쟁에서 처음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이라크 어린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표현해 그 위험성을 생생하게 드러낸 우표와 관련 내용 등도 흥미롭게 읽혀진다. <정문고·2만2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계를 닮아가는 현대인들, 인간다움의 의미는

‘가장 인간적인 인간’ 브라이언 크리스찬 지음

휴 피브너는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앨런 튜링(1912~1954)이 고안한 ‘튜링 테스트’에 근거한 ‘피브너 상’이라는 대회를 만들었는데 심사위원단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간 연합군’과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에게 문제를 낸 뒤 누가 누구인지를 맞히는 대회다. 피브너 상은 인공지능 학계에서 가장 큰 기대와 화제를 몰고 다니는 연례 행사 중 하나다. 심사위원단이 실제 인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컴퓨터에게 ‘가장 인간적인 컴퓨터’(Most Human Computer), 실제 인간임을 확인시키는 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연합군 일원에게 ‘가장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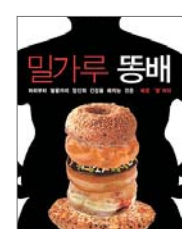


적인 인간’(Most Human Human)이라는 상을 주는 대회다. 책은 2009년 피브너상 대회에 ‘인간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가해 ‘가장 인간적인 인간상’을 받은 브라이언 크리스찬이 ‘인간성의 재탐색’이라는 주제에 따라 당시 경험을 토대로 쓴 것이다. 로봇들이 종종 승리하는 까닭은 로봇이 인간을 닮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점점 기계를 닮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많은 시간을 컴퓨터와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존재 조건 속에서 참된 인간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책읽는 수요일·1만6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건강 되찾으려면 당장 밀 음식부터 끊어라

‘밀가루 똥배’ 윌리엄 데이비스 지음

“밀과의 이별을 해야 할 시간이다.” 윌리엄 데이비스는 ‘밀가루 똥배’(Wheat Belly)에서 방대한 의학 이론과 임상 실험 결과를 토대로 밀가루 음식이 숨겨져 있던 ‘반전’을 낱알이 고발하며 밀이 들어간 식품을 멀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심장병 예방학의사인 저자도 부위에 베이글이나 머핀을 두지 않는 철저한 ‘밀 안티’ 운동가다. 그는 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해치는 통곡물로 규정하고 있다.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으로는 거의 독보적이며 몸의 산성도를 높이는 한편,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또 밀 식품이 혈당 수준을 곧바로 캔디 바에 이르는 탄수화



물보다 확실히 높게 끌어올린다는 점도 연구 결과를 첨부해 주장하고 있다. 그는 책에서 밀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현대인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선 당장 밀 음식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은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비만율이 급증했는데, 이는 유전자를 변형한 밀이 식탁을 점령하기 시작한 때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밀 글루텐은 교배 과정에서 상당한 구조 변화를 겪는데도 제대로 된 안전성 실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저자는 이의 건강하게 밀가루 똥배를 줄이는 법과 식이 요법 등도 부록으로 담았다. <에코리브르·1만8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니체의 삶과 사상 궤적을 풀어놓다

‘니체 극장’ 고명섭 지음

한겨레신문 기자인 고명섭씨가 5년 가까이 니체의 삶을 추적하고 내면 세계와 사상을 탐사해 엮어냈다. 책은 ‘젊은 철학자’, ‘방랑하는 자유정신’ ‘차라투스트라의 탄생’, ‘창조하는 파괴자’ 등 4부로 나눠 니체의 삶과 사상의 궤적을 풀어놓고 있다. 디오니소스로 대표되는 그리스 비극 정신을 새롭게 해석, 부활시키는 학문적 여정을 담았고 연인이었던



루 살로메와의 비극적 운명도 그리고 있다. 니체 사상의 핵심이자 전부가 할 수 있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철학사적 의미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기교한 사유를 품고 잔인한 주장을 서슴치 않는 철학자이면서 오만한 인격체, 동시에 고독한 인간이었던 니체의 삶과 사상을 온전히 그려내고 있다. <김영사·2만8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꿈같은 로또당첨... 이 부부에게 무슨일

‘내 욕망의 리스트’ 그레구아르 들라루르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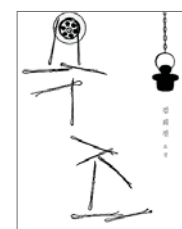
“로또 1등에만 당첨되면 이렇게 살거야.” 월급은 쥐꼬리에도, 경기 침체로 살기는 파국이다. 밤 늦게 회사를 나서며 동료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렇게 외쳐본 회사원들 많지 않은가. ‘내 욕망의 리스트’는 카페리어터 출신 그레구아르 들라루르의 소설로 프랑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47살의 주부 조슬린은 로또를 샀다가 1등에 당첨된다. 당첨금은 무려



270억 원. 두려움에 휩싸여 남편에게 알리지 못한 채 전전긍긍한다. 어느 날 출장을 떠난 남편과 함께 구두 깔창 밑에 감춰둔 270억 원짜리 수표도 사라진다. 10개월 뒤 50억 원을 평평 쓰다가 의로움과 괴로움에 찌든 남편은 나머지 220억 원과 사과 편지를 아내에게 보내왔다. 당신이 아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로또에 당첨된 뒤 이야기를 다뤄 흥미롭다. <레드박스·1만1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욕조’ ‘양파의 습관’ 김희진 지음

광주 출신 소설가 김희진이 두권의 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지난 2007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허’가 당선돼 등단한 김씨는 첫 장편 소설 ‘고향이 호탈’로 대산문화상 창작 기금을 받았다. 첫번째 소설집인 ‘욕조’에는 모두 8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등단작인 ‘허’는 입에서 빠져 나온 허들이 공중에 떠다니며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표제작 ‘욕조’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여자가 불면증에 시달리다 인공 ‘욕조’에서 잠을 청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버리고, 개인적 평온함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책은 그밖에 붉은 색을 먹어치움으로써 붉은색과 관련된 모든 의미를 세상에 삭제해 버리는 ‘붉은색을 먹다’ 등 독특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실려 있다. 지난해 펴낸 ‘웃의 시간들’에 이은 세번째 장편소설 ‘양파의 습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이다. 약자처럼 말랐고 시끄러운 사람들이 모여사는 주황주택단지 ‘55호’에 장호네가 이사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민음사·1만2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간

▲서쪽 숲에 갔다=동인문화사(2011),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2010), 이효석문학상(2009), 한국일보문학상(2007) 등을 받은 편혜영 작가의 두번째 장편소설. 서울에서 400km 가량 떨어진, 차로 네 시간 거리에 위치한 숲을 무대로 이곳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다. 변호사인 이하인이 실종된 형 이경민을 찾아 박인수가 관리사무원으로 있는 숲에 들어오고 형의 흔적을 찾다가 뽕소니 트랙에 치여 죽는다. 숲을 둘러싼 마을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문학과지식사·1만2000원> ▲중국 식객=다큐 PD인 윤태욱씨가 직접 가본 중국 24개 도시의 여행 이야기와 96개 식당의 음식 이야기에 중국의 자연, 고장의 특징 등을 자세히 풀어냈다. 냄새나고 거북하다며 지레 피하지 말고 마음과 입맛을 열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좋은 동반자와 유쾌한 여행을 떠나기를 권한다. <매경출판·1만8000원> ▲나는 게이라서 행복하다=영화감독이자 제작자인 김조광수 청년필름 대표의 ‘해피 엔드’, ‘질투는 나의 힘’, ‘올드미스디자이너’, ‘조선명탐정’등을 기획·제작하고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을 연출했다. 그가 세간에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영화인으로서가 아니라 게이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하며 성 소수자의 인권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김도혜 탄탄프로젝트 대표가 김조광수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그의 삶, 영



화관, 세상을 보는 눈 등을 담았다. <일마·1만6500원> ▲오후의 빛깔=국내 대표적 여성 문인의 산실 ‘여성동아 문우회’ 작가들의 최신 단편을 모아 엮은 소설집. 블루·레드·화이트 등 세 가지 컬러를 모티브로 16편의 작가들이 쓴 신작을 모았다. 화려하면서도 여성적이고 감각적인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작가들의 시도가 엿보인다. <예담·1만1000원> ▲아멜리아 에어하트=‘최초의 대서양 횡단 여성’으로, 대공황기를 비롯,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현실 극복에 필요한 롤모델로 거론되는 미국 아이콘 중 한명인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삶을 다룬 책.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싶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도전을 하다 40년이 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여성의 이야기를 다뤘다. <책과 삶·2만3000원> ▲서울, 한양의 기억을 걷다=서울의 산과 성곽, 마을과 강을 따라 걸으며 옛 한양의 흔적을 복원한 인문·역사·지리서. 한양 도성을 둘러싸고 독특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안산, 인왕산, 북악산, 남산을 시작으로 서울의 성곽, 마을, 강으로 이어지는 한양의 역사를 하나하나 탐색해간다. 저자인 김용관씨가 한양이라는 도시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강조하는 성곽과 성문에 얽힌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인물과 시사사·1만6000원>



▲커졌다=똑같은 밥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는데 왜 나는 친구보다 키가 작을까. 자신보다 조금 더 큰 친구들을 보면 속상해하고 부러워하는 아이들의 고민을 발칙한 상상력으로 풀어낸다. 잠을 많이 자고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고 두 팔 벌려 비를 맞고 아이는 나무처럼 쑥쑥 자란다. 아빠가 일하는 회사 건물보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일 만큼 천사와 욕망상제가 있다는 하늘나라, 우주까지 폭폭 커지는 상상력이 기발하다. <사계절·1만1500원> ▲김치 두 주세요=맛있는 밥상 시리즈의 첫번째로, 햄버거·스파게티·피자 등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일러스트를 덧붙여 국내 전통과 음식의 소중함, 중요성, 풍부한 영양을 알려주고 있다. 김치의 역사, 종류, 김치를 활용한 퓨전 요리 등도 소개한다. <소담주니어·9800원> ▲내 사과파이, 누가 먹었지?=생쥐와 고슴도치는 잘 익은 사과로 사과파이를 만들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남아있는 피리를 단서로 사과파이 찾기에 나서는 동물들.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눈을 시원하게 하는 밝은 그림과 관찰력, 추리력, 논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노래래지·1만1000원> ▲미리 가 본 국립민속 박물관=‘세계유명박물관 여행’시리즈로 루브르·대영·오르세·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이어 일곱 번째다. 선조들의 일상생활을 비롯, 과거부터 현재 우리 모습을 통틀어 볼 수 있도록 했고 유물을 통해 생활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250여개의 유물 사진과 50여개의 풍속화, 40여개의 인물화와 사진을 수록했다. <한림출판사·1만7000원> ▲깜장우산=예술과 심리 동화 시리즈로, 예술치료사와 심리치료사가 쓴 글에 예술가들의 그림을 첨가해 구성한 점이 눈길을 끈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지만 타인과 소통하면서 다른 내면을 깨닫고 기뻐하는 깜장우산의 이야기다. <나한기획·1만8000원>

어린이 책꽂이